

2월 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2월 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고용악재 딛고 급등..`경기부양책 기대` [다우: 8280.59 (+ 2.70%)	6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은 주요 지수가 일제히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급등세로 마침. 경기부양책과 금융구제안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 경기후퇴(recession)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시장의 침체가 예상보다 심화됐지만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승화됨.
美 상원, 경기부양법안 곧 표결	미국 상원은 이날 총 9,000억달러 이상의 경기부양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7시 사이에 의회에서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부진한 고용지표를 접한 후 경기부양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
재무부, 9일 오후 금융 구제안 발표→금융주 급등	재무부는 오는 9일 오후 금융구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이 자리에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지원할 금융안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재무부가 전함에 따라 금융주가 급등세를 탐.
1월 고용 감소 `34년 최악`-실업률 7.6%	미국의 경기후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시장의 침체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일자리가 13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실업률은 16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출발점인 고용시장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후퇴가 보다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됨. 노동부는 1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59만8,000명 줄었다고 밝힘. 실업률은 7.6%로 치솟음.
국제유가, 美 실업률로 하락..배럴당 40.17弗 [WTI: \$40.17 (-\$1.00)	국제유가가 미국의 부진한 고용지표에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기록. 지난 1월중 미국의 일자리 감소 규모가 1974년 이후 가장 많은 59만명을 상회하며, 실업률이 16년래 최고인 7.6%까지 치솟은 점이 영향을 미침.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미국이 경기후퇴(recession)가 지속되면서 원유수요 부진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감이 작용.
프랑스서 경제위기 대 책에 불만 증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경제위기 대응책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8일 공개된 일간 리베라시옹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경기부양방안에 반대의사를 나타내 한 달 전에 비해 10%포인트 증가.

제목	주요 내용
일(日) 제조업체들 줄 줄이 임원 급여 삭감	일본의 대표적인 제조업체들이 최근 경영 악화에 따른 책임을 물어 임원의 급여를 삭감함. 파나소닉·도요타 같은 일본 대표 제조업체들의 이 같은 임원 급여 삭감은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이란 측면과 함께, 올봄 춘투(매년 3~5월 사측과 노동조합간 임금 교섭)를 앞두고 일반 직원에 대한 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
日 민간은행 기업대출 금 정부가 상환보증	일본 정부는 민간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준 자금에 대해 상환을 보증하는 등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7일 보도. 일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기업 자금난 해소 대책에서 자금난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일본정책투자은행을 통해 해당 회사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총 1조5,000억 엔을 지원하기로 함.
중국 대외무역 규모 급속 위축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대외무역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급격히 위축. 8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집계 결과 지난해 중국의 대외무역액은 2조5,600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17.8% 증가하는데 그침. 이는 전년 증가율에 비해 5.7%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중국의 무역 증가율이 20% 이하로 내려간 것은 7년 만에 처음.
주가연계펀드 ‘반토막 상환’ 무더기	8일 자산운용업체에 따르면 작년 10월 이후 상환된 ELF 총 86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개가 원금을 까먹은 상태로 상환. 상환손실이 가장 큰 상품은 하나UBS자산운용의 ‘하나UBS SKT하이닉스 주가연계과생1’로 원금의 81.93%를 까먹은채 만기 상환. 지난 2006년 12월에 설정된 이 상품은 SKT와 하이닉스 두 종목 주가에 연계된 상품임.
맥쿼리 "韓 올해 경제 성장률 -2.5→-4.5% 하향"	맥쿼리는 "올 1분기까지 외부수요 악화 충격을 받을 것이며 내수만으로 의미있는 성장을 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분기별로는 한국경제가 올 2분기까지는 안정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수출은 올해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봄. 이에 따라 원화에 대한 순수요가 생겨 원화 약세가 제한될 것이며 달러-원환율은 1분기말까지는 1,375원보다 더 높을 수 있지만 이후 하락해 연말에는 1,300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10조 쌓아도 부족한 대손충당금	시중은행들이 불어나는 대손충당금에 한숨을 쉬고 있음. 지난해 적자를 무릅쓰고 10조원에 달하는 충당금을 쌓았으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탓. 특히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라가는 등 상황이 악화되는 것도 부담. 금융당국은 자칫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